

2011. 5. 2 제262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

2011. 5. 2 제262호

문화 · 디자인

(토막기사) 템스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소형 선박 이벤트 개최 (런던)

산업 · 경제

1. '혁신지수' 매년 발표 (뉴욕)

건강 · 복지

2. 아동보호 · 보육 서비스 '최우수도시'로 선정 (영국 리버풀市)

3. 수혜자친화형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전환 (영국 버밍엄市)

(토막기사) 시 · 정 · 촌 무장애화(Barrier Free) 기본구상 작성현황 발표
(일본)

(토막기사)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 시행 (영국 카
디프市)

4. 성 평등정책 평가 및 방향 제시 (베를린)

행정 · 재정

(토막기사) 지방정부의 평등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영국 뉴캐슬市)

도시환경

5. 조류 충돌 방지용 그물망을 FBI 빌딩에 설치 (미국 시카고市)
6.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효율 증진 프로그램 실시 (런던)
(토막기사) 유럽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주요 환경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아이디어 기차’ 운영 (독일 함부르크市)
7. ‘기타큐슈 수소타운’ 운영 (일본 기타큐슈市)
(토막기사) ‘청정공기펀드’를 창설해 획기적인 대기오염 예방책 실시 (런던)

도시교통

- (토막기사)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 케이블카 설치 추진 (런던)
- (토막기사)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미국 샌디에이고市)

도시계획 · 주택

8. 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이트시티 지역 재생사업 추진 (런던)
 9. 도시에 ‘녹색 전원도시’ 조성 (영국 맨체스터市)
(토막기사) 전철 폐선(廢線) 부지에 산책로 조성 (일본 요코하마市)
(토막기사) ‘대가구화(大街區化) 가이드라인’ 작성 · 배포 (일본)
-

문화 · 디자인

템스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소형 선박 이벤트 개최 (런던)

- 런던시는 2012년 올림픽과 함께 세계적인 규모의 소형 배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런던이 지금까지 템스강에서 진행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예정이다. 영국 전역, 영연방 국가, 전 세계로부터 1000여 척의 배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됨. 동시에 약 100만 명이 템스강변을 따라 운집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시는 템스강변을 따라 행사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를 젓는 배, 범선, 증기선, 엔진으로 운항하는 배 등 다양한 유형의 배들이 참여해 영국의 문화 역량과 영연방국가의 과거 해상력을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선의 워터제트를 이용한 공연, 음악공연, 폭죽 행사 등이 개최됨. 템스강변을 따라 하게 될 행진에는 군인, 경찰, 해상구조대, 여객선 선원으로 구성된 3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를 위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 전용공간이 강변과 주변지역에 조성됨. 시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민간의 기부와 스폰서십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thames-host-diamond-jubilee-largest-flotilla-modern-times)

산 업 · 경 제

1. '혁신지수' 매년 발표 (뉴욕)

- 뉴욕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에 걸쳐 혁신지수가 12%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수를 공개함. 뉴욕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로 시 경제개발공사가 주관하였으며, 혁신 관련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함. 시는 혁신지수 데이터를 앞으로 매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도시 혁신에 있어 투입(Input)은 R&D 분야에 소요되는 자본, 금융자본, 인적자본의 3가지로 선정하고, 산출(Output, 지적자산의 성장률)에 해당되는 사항은 첨단산업의 생산성, 창업의 2가지로 추려 도시 경제의 혁신지수를 산출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3년에서 2009년 사이 도시총생산(GCP; the Gross City Product)은 25% 이상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 첨단산업 종사자의 1인당 연간 도시총생산액이 2억 2000만 원 이상으로 산업 분야 중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2010년 시 도심을 중심으로 조사한 벤처캐피탈의 규모 역시 현저하게 성장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 내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성장률과 자본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에는 뉴욕시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연방정부로부터 33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혁신을 추진한 결과 2003년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

- 2003년 대비 2009년 도시혁신 부문에 대한 R&D 투자는 13%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4배에 가까운 결과임. 주요 R&D 투자는 뉴욕시내 여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또한 2009년 17만 9000명 이상의 인력이 과학 및 공학 분야 산업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주요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市는 이번 혁신지수가 뉴욕市를 ‘21세기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함. 이와 관련해 뉴욕市에 새로운 산업 및 사업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벤처캐피털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함.

【2003~2009년 뉴욕市 혁신지수 변화 추이】

	평균 연간 성장률 (2003~2009)	기간 중 총성장률 (2003~2009)	2008년 대비 2009년 성장동향
뉴욕市 혁신지수	1.9%	12.2%	↑
투입지표	2.2%	13.7%	↑
R&D	0.8%	4.8%	↑
금융자본	3.5%	23.0%	↑
인적자본	2.1%	13.2%	↑
산출지표	1.7%	10.7%	↑
지적자산	-0.3%	-1.8%	↑
첨단산업 GDP	4.1%	27.6%	↓
창업률 및 고용 다양성	1.0%	6.3%	↑

(www.nyc.gov)

(www.nycedc.com/NewsPublications/NYCEconomics/NYCEDCInnovationIndex/Pages/NYCEDCInnovationIndex.aspx)

건 강 · 복 지

2. 아동보호·보육 서비스 ‘최우수도시’로 선정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내 아동 복지 및 보호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 중 하나로 리버풀市가 선정됨. 이번 평가는 교육·아동서비스기준청 및 보육위원회에서 주관해 2011년 초 약 3주간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보육 관련 공공서비스 종사자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작위 인터뷰를 통해 진행함.

- 리버풀市는 ‘ 전반적인 효율성’과 ‘개선능력’ 분야에서 우수(Good) 평가를 받는 등 전체 22개 분야에서 ‘최우수’ 5개, ‘우수’ 17개의 성적표를 받음. 특히 서비스 직접 수혜자인 어린이/청소년들로 이뤄진 아동보육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 공공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전달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폭넓게 수용해서 집행과정에 적용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음.

· 조사단은 개별 사례 인터뷰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필요한 경우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힘. 전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94%가 ‘아주 안전’ 또는 ‘상당히 안전’을 선택함.

· 아동 공공서비스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위탁 상담전화 서비스도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음. 서비스 제공조직의 관리 측면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음.

- 市는 사회복지서비스 공무원들과 각 분야 파트너들의 놀라운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市는 그동안 한부모 가정

등 불우한 가정환경의 어린이/청소년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원·교육하는 데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이고 다양한 아동 보호/보육 서비스를 각 지역공동체에 제공할 계획임.

-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각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이 좋은 평가를 받음. 예를 들어 리버풀 1차 진료 트러스트 등의 보건기구와 협력해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성과를 거둔 것이 ‘최우수’ 등급에 포함됨. 더불어 공공서비스 제공 우선순위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안전 부문에 높은 비중을 둔 점도 좋게 평가받음.
- 협력기관 파트너들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방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관리자 능력 배양, 보호/보육 서비스 최신 자료 갱신, 반복되는 문제점 모니터링, 특별관리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www.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196459)

3. 수혜자친화형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전환 (영국 버밍엄市)

- 영국 버밍엄市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해 영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6개 도시 중 하나로 각광받음. 이번 혁신(안)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공서비스 기관의 창의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해 사회복지·보건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혜자친화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직원들이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성과를 증진하려는 목적도 있음.

- 중앙정부 예산도 지원받고 市 자체 예산도 배정해 민간 부문(사회적 기업)의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활동을 촉진/지원하고, 각 지역구 단위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함. 市는 민영화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기업이 공공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을 위임함.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기관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해 생활밀착형으로, 수혜자가 실제로 원하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도록 ① 사회복지서비스 의사결정 권한 위임, ②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③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법 검토 및 실시, ④ 지역사회 간 교류 증진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 확대 등과 같은 권한과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에게 부여함.
- 이와 같은 선도적인 개혁안은 市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성과평가 방안을 모색하며,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음.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사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http://birminghamnewsroom.com/2011/04/birmingham-to-pilot-new-way-of-delivering-social-work/>)

시·정·촌 무장애화(Barrier Free) 기본구상 작성현황 발표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1년 4월 8일 전국 시·정·촌을 대상으로 Barrier Free법에 근거한 ‘무장애화 기본구상’ 작성현황(2010년 3월 기준)을 발표함. 일본의 시·정·촌은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 및 촉진에 관한 법률’(Barrier Free법)에 따라 중점정비지구(여객시설과 병원, 복지시설 등 고령자와 장애인 이용시설 밀집지역)를 대상으로 한 무장애화 정책 및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장애화 기본구상’을 수립할 수 있음.
- 기본구상을 작성했거나 작성할 예정인 시·정·촌은 전체 1750개 중 440곳이었으며, 이 중 1일 이용자 5000명 이상인 철도역 등의 여객시설이 있는 시·정·촌은 339곳임. 기본구상을 작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시·정·촌은 1310곳이고 이 중 1일 이용자 5000명 이상인 철도역 등 여객시설이 있는 시·정·촌은 172곳임. 이유로는 예산 부족(4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담당부서 부재(31%), 작성 노하우 부족(15%) 등으로 나타남. 국토교통성은 기본구상을 작성하지 않은 시·정·촌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무장애화 프로모터를 파견할 계획임.

(www.mlit.go.jp/report/press/sogo09_hh_000028.html)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 시행 (영국 카디프市)

- 영국 카디프市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카디프·베일대학 보건위원회와 파트너십을 이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열두 가정이 참가한 제3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침. 이에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리고 자축하기 위한 행사를 채널 뷰 레저센터에서 열고 참가한 가정에 수료증을 수여함.

-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놀이, 영양가 높은 음식조리법 등을 가르치는 강좌를 포함함.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실습 및 체험도 하고, 운동과 야외 활동도 함께 함으로써 부모와 아이와의 친밀도도 증진시킴. 참가한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식습관이 바뀌었고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변화되었다고 평가함.
- 市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인근 지역에서도 지원자를 받고 참가자 수도 확대할 계획임. 2주에 한 번씩 각 지역사회에 있는 레저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련 강좌를 열고, 참가 가족 스스로 5개 이상의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하도록 할 예정임. 또한 전문가와 실무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제4기 프로그램은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10주간 열리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www.cardiff.gov.uk/content.asp?nav=2874&parent_directory_id=2865&id=11518&Language=)

4. 성 평등정책 평가 및 방향 제시 (베를린)

- 베를린市는 ‘베를린 젠더(Gender) 데이터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함.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인구 변화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지수를 보여주는 자료임. 市 경제기술여성부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통계청이 2010년 처음으로 이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초판을 보완한 두 번째 보고서를 이번에 인터넷에 올림. 이 보고서는 베를린 성 평등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여주고 있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 평등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분야는 학문 분야임. 학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회 평등에 주안점을 둔 결과 2009년 베를린 소재 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여성이 46.9%, 교수자격시험 준비과정에 있는 여성이 32.2%, 베를린에 위치한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여성이 55%로 증가함. 또한 대학교수 중 여성의 비율이 26.8%로 나타남.
- 하지만 가족관계의 변화가 여성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절반 정도만이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전체 가정의 1/3 정도가 한쪽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이 중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비율이 91%에 달함.
 -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의 가장 큰 고충은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임. 여기에 성차별적인 업무분장, 적은 수입 등의 이유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들이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市는 그동안 가사와 취업의 병행을 위한 법·제도적 요건을 개선하고, 탁아시설을 확대하거나 전일학교를 설립해 이들을 지원해왔음.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市의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베를린에 거주하는 여성 취업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09년 62.9%를 기록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 하지만 실제로 고용이 급증한 분야는 임시고용이 39%, 중요도가 떨어지는 저임금 직종 취업이 81%임. 상근이 아닌 파트타임 근무도 30.5%로 증가함.
 - 사회보장혜택이 있는 직업군에서 일하는 여성의 평균임금도 남성보다 약 23% 낮고, 시간당 평균임금도 26% 정도 차이남. 市는 이

러한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임. 또한 임금 하락을 막고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이나 이민 여성이 위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 여성의 학과 및 전공, 직업 선택경향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여성들은 전문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교육, 사회, 건강 및 복지 분야의 학과를 많이 선택하는데 이 분야의 직업군은 대부분 전문직 가능성도 낮고 수입도 적음.
- 市는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군에 여성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매년 ‘Girl’s Day’라는 행사를 열어 ‘남성 직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음. 이 행사는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남성 직업’이라고 인식되는 기술 및 자연과학 관련 직업세계를 여학생들이 체험하도록 하는 행사임. 독일 전역에서 시행 중이며, 거의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최하고 있음.

(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10412.1010.340117.html)

(www.statistik-berlin-brandenburg.de/gender)

행정 · 재정

지방정부의 평등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영국 뉴캐슬市)

- 영국 뉴캐슬市는 지방정부 평등성 평가에서 북동부 잉글랜드 지역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음. 각 지방정부 부서장, 일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영국 전역에서 뉴캐슬市를 비롯한 극소수 지방자치단체만 최우수 평가를 받음.
- ‘지방정부의 평등성’이란 모든 시민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각의 주민들에게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가 다양한 지역사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市 행정에 얼마만큼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선출직 공무원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지를 조사함.
- 市는 지난 10여 년간 조직문화, 공무원 고용체계,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서 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또한 97%의 공무원들이 평등성과 다양성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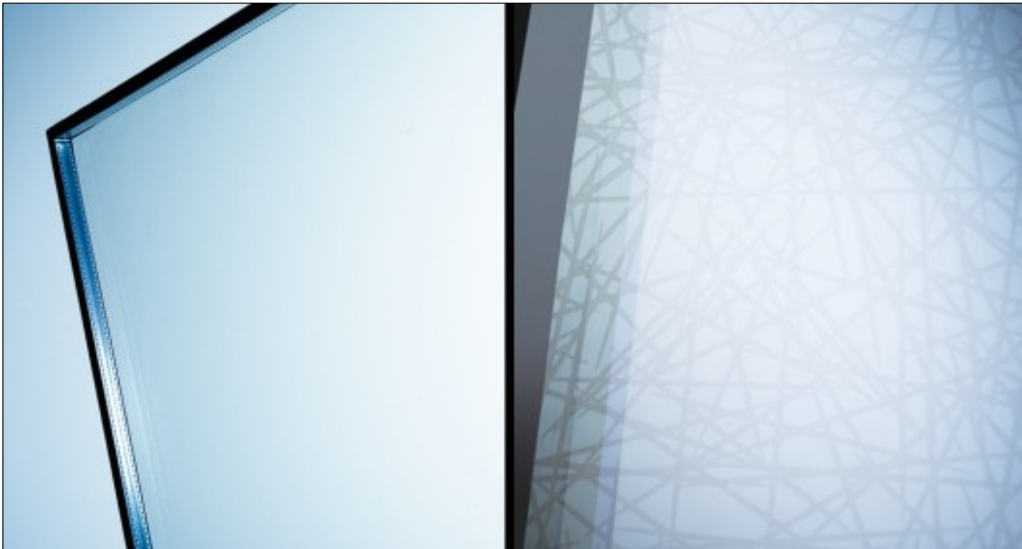
(www.newcastle.gov.uk/press.nsf/newsbyid/8A6BD90750503BD680257869004A6AC5?opendocument)

도 시 환 경

5. 조류 충돌 방지용 그물망을 FBI 빌딩에 설치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FBI 건물에 조류가 건물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충돌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특별 제작되어 설치됨. 이 그물망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들이 건물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FBI 건물은 환경친화적인 건물 디자인에 수여되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받았지만, 건물 내에 심은 식물과 건물 유리창으로 인해 매일 평균 10건 이상의 조류 충돌이 발생함.
 - 미국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유리창을 새들이 인식하지 못해 매년 1억~10억 마리의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집계됨. 또한 충돌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면 고층건물의 경우 급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사람이 빨려나갈 수 있고, 충돌해 떨어지는 새는 행인에게도 위협할 수 있음.
 - 미국 조류보호협회와 환경단체는 미국 녹색건물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와 함께 LEED 인증 대상을 선정할 때 조류친화적 디자인을 갖춘 건물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새로 짓는 연방정부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류친화적인 디자인을 갖추도록 연방법 개정 추진 중임.

-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건물 디자인 및 추진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점검할 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제공하고 있음. 캐나다 토론토市는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명시설 및 유리창의 디자인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음.
 - 독일의 유리제작사인 ‘Glaswerke Arnold’는 새의 충돌을 줄이는 유리를 개발해 2010년 ‘Red Dot’ 디자인상을 받음. 새는 자외선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었음. 유리창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격자를 넣어 사람에게에는 유리창이 투명하게 보이지만 새에게는 격자망이 보여 충돌을 피하도록 함(아래 사진 참조).



【사람과 새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특수유리창(오른쪽이 새의 눈에 보이는 모습)】



【FBI 건물에 설치된 그물망】

(www.chicagotribune.com/news/local/chicago/ct-x-c-fbi-birds-20110413,0,4666884.story)

(www.birdsandbuildings.org/info.html)

(www.birdsandbuildings.org/docs/ChicagoBirdSafeDesignGuide.pdf)

(www.sf-planning.org/index.aspx?page=2506)

6.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효율 증진 프로그램 실시 (런던)

- 런던시는 친환경 관련 일자리(Green Collar Jobs)를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은 저탄소 경제 발전과 녹색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됨. 시는 최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분야, 런던 그린펀드, 유럽연합의 관련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시는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프로젝트에 1억 1650만 파운드(약 2000억 원)를 투자하는 계획안을 확정함.
- 시는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향후 10년간 400억 파운드(약 71조 5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이를 통해 21세기 저탄소 산업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에너지효율 증진 프로그램은 저탄소 경제, 일자리 창출, 에너지효율형 주택과 업무용 빌딩 신축 및 개조, 저탄소 배출형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게 됨.
-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에너지효율형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9000세대의 주택에 이미 무료로 저탄소 배출 설비를 설치한 데 이어 2012년까지 20만 세대에 이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고, ② 10군데의 저탄소 배출 존(Low Carbon Zones)을 지정하며, ③ 런던 그린펀드(London Green Fund)를 통해 1억 파운드(약 1800억 원)를 투자하고, ④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성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시행하며, ⑤ 저탄소 경제와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 엔터프라이즈 존(Green Enterprise Zone)에 투자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confirms-go-ahead-energy-efficiency-programmes-create-green-colla)

유럽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주요 환경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아이디어 기차’ 운영 (독일 함부르크市)

- ‘2011년 유럽 환경수도’로 선정된 독일 함부르크市는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럽 18개 대도시를 순회하며 전시 여행을 하는 ‘아이디어 기차’(Train of Ideas)를 운영함. 첫 번째 행선지는 함부르크의 알토나(Altona)역임.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기차에서 유럽의 주요 환경 프로젝트가 전시됨. 7개 차량으로 이루어지며 1개 차량에서는 특별행사를 열고 6개 차량에서는 각기 다른 주제로 환경프로젝트를 소개함.

-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함부르크 하펜시티(HafenCity)나 게오르크베르더 에너지산과 같은 대표적인 환경수도 프로젝트를 가상 체험하는 행사임. ‘미래도시의 비전’이란 주제의 전시공간에서는 미래 유럽 도시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유럽 도시에서 추진 중인 100여 개의 시범 프로젝트도 소개함.

- 아이디어 기차는 함부르크에서 전시회를 연 뒤 코펜하겐, 파리, 브뤼셀, 빈,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17개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함. 예약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단체 방문객이 전시회에 대해 안내를 원할 경우 홈페이지(www.train-of-ideas.net)에서 예약을 해야 함. 안내에 대한 비용은 무료이며 시간은 45분 정도 소요됨.

(www.train-of-ideas.net)

7. '기타큐슈 수소타운' 운영 (일본 기타큐슈市)

-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소에너지 모델타운 구축을 목표로 '기타큐슈(北九州) 수소타운' 프로젝트를 201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함. 이 프로젝트는 2009년 9월에 설치된 '기타큐슈 수소 스테이션'에서 주변의 주택지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부취(付臭, Odorization)된 수소를 공급해 순수소형 연료전지 운전, 순수소형 연료전지와 태양광 발전 및 축전지와의 연계 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시스템을 검증하는 사업임.
- 경제산업성은 실증시험을 통해 효율적인 수소의 수송수단과 수소 공급 비즈니스모델을 검증할 예정임. 순수소형 연료전지는 수소만을 원료로 하므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연료전지임.

【실증시험 개요】

실증시험 항목	개요
수소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 공급기술 실증	수소 스테이션 내에 설치한 부취(付臭, Odorization) 설비로 부취한 수소를 공급, 24시간 감시체제 하에서 안정·안전 공급에 관한 운용 측면 과제 추출
순수소형 연료전지 운전 실증	1KW, 100KW급 순수소형 연료전지를 여러 대 설치해 수소 이용 시스템을 평가하고 계량시스템, 탈취장치, 원격 집중관리시스템 등의 주변기술 검증
가정용 순수소형 연료전지와 태양광 발전 및 축전지와의 연계 실증	전력부하 밸런스에 맞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검증하고, 정전 시를 가정한 전력 계통의 독립적인 전력·열원 공급 검증
업무용 순수소 연료전지와 축전지와의 연계 실증	정전 시 수소 분배자 제어용 공기압축기를 대상으로 전력공급 운전 실증
수소 저압충전기 운전 실증	수소 저압충전 설비를 설치해 연료전지 리프터, 연료전지 어시스트 자전거 등의 소형 이동체에 이용되는 수소 카트리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 실증

(www.meti.go.jp/press/20110113002/20110113002-2.pdf)

‘청정공기펀드’를 창설해 획기적인 대기오염 예방책 실시 (런던)

- 런던시는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영국 교통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청정공기펀드’(Clean Air Fund)를 창설함. 이 펀드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1일 적정량을 넘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저감방안을 시행하는 데 사용됨.

- 교통량이 많은 메릴리본 가로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초과지역으로 현재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시행 중임. 시는 펀드를 활용해 도심 대기오염 측정시설(Pollution Station)도 설치할 계획임. 자동차 통행 규제에서 나아가 오염원의 주기적인 감독과 감시 등 더 근원적인 접근방법을 추진함. 이의 일환으로 택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과 감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만 진입할 수 있는 ‘초(超)저배출 존’(Very Low Emission Zone) 도입도 검토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white-city-plans-will-deliver-thousands-homes-jobs-and-better-public-sp)

도 시 교 통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 케이블카 설치 추진 (런던)

- 런던시는 문화공연장인 O2 지역과 런던 도클랜드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적 수준의 케이블카를 도입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발표함. 템스강을 가로질러 1.1km 구간에 34개의 곤돌라가 운영되며, 시간당 2500명의 승객을 수송하면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는 케이블카가 자전거도 이동시킬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자에게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市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① 강북(로열독 지역)과 강남(그리니치 지역)의 접근성 향상, ② 교통수송능력 향상, ③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 폭 확대, ④ 교통네트워크의 탄력성 향상, ⑤ 새로운 관광지 조성 촉진 및 관광객 유치, ⑥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⑦ 주택단지 조성, ⑧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로열독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을 활성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런던 동부지역의 재생사업을 촉진하며,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市는 케이블카 건설에 투자할 대상자를 모집해 2011년 여름 착공할 예정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announces-world-class-consortium-construct-london's-cable-car)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미국 샌디에이고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市는 2010~2011년 대중교통 이용객 분석을 통해 유가 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함. 2011년 3월의 유가가 2010년 3월에 비해 30% 이상 급등함에 따라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도 7% 증가함.

- 트롤리 이용객은 2011년 2월 기준으로 2010년 2월에 비해 5% 증가하고, 버스 이용객은 2011년 3월 기준으로 2010년 3월에 비해 7% 이상 증가함. 통근열차 이용객은 13% 증가하였고, 관광열차와 관광버스 이용객은 각각 5%, 14% 증가함. 주중에 열리는 야구경기 관람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평균 5000명에서 7500명으로 증가함.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되었던 일부 대중교통 서비스가 재개되었으며,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도 증가해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함.

(www.signonsandiego.com/news/2011/apr/09/rising-gas-prices-again-filling-seats-public-trans/)

도시계획 · 주택

8. 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이트시티 지역 재생 사업 추진 (런던)

○ 런던시는 유럽 최대의 도심 쇼핑센터인 웨스트필드와 BBC가 위치한 화이트시티(White City)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건설과 일자리 확충, 양질의 공공공간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재생계획을 세움. 시는 화이트시티 개발을 통해 4500세대의 서민주택 건설, 1만 개의 일자리 확충, 공공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 계획은 향후 15년~20년간 시 기본계획에서 기회지역(Opportunity Areas)으로 지정해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와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함. 특히 최근에 완공된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심 쇼핑센터 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와 양질의 공공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화이트시티 도시재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화이트시티 도심 쇼핑센터 활성화, ② 창조, 미디어, 바이오의 학 분야의 연구와 개발 촉진을 위해 복합용도 개발 추진, ③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 인프라와 커뮤니티시설 확충, ④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 융화 추진, 평등한 기회 제공, ⑤ 양질의 공공공간과 민간 소유 공간의 디자인수준 향상, 특히 주변 지역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개선, ⑥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에너지효율적인 주택 건설, ⑦ 고속도로 진입로의 교통체증 저감, 공공교통시설 기능 향상, 보행과 자전거 이용 장려

- 현재 시는 화이트시티 관할 자치구인 해머스미스와 연계해 이 지역

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히 市는 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원하는 레저시설과 공공교통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영국의 대표 방송사인 BBC와 명문 대학 병원을 기반으로 이 지역을 미디어와 창조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white-city-plans-will-deliver-thousands-homes-jobs-and-better-public-spo)

9. 도심에 '녹색 전원도시' 조성 (영국 맨체스터市)

- 영국 맨체스터市는 '녹색 전원도시' 장기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피커딜리 분지 지역을 녹색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실험을 시작할 예정임. 본래 이 지역은 맨체스터 도시 관리회사인 Cityco社의 지원을 받아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었음. 이제는 전원도시 계획에 따라 운하 남쪽은 완두콩, 약초, 허브 등 햇볕을 잘 받는 식물을 키우고 반대쪽은 양귀비, 카밀레 등 야생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전원도시로의 변화를 도울 예정임.
- 이 계획은 시티코社와 지역 건축가, 유럽 건축가·디자이너·엔지니어·도시계획가 모임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공업단지의 녹색공간을 늘리고 공원화를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市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도록 독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함.
 - 공공 및 민간조직이 힘을 합쳐 도심부에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닌

야생 그대로의 환경을 만들려고 함. 市는 전원도시 계획을 브랜드 화해 이번 피커딜리 분지 지역을 시작으로 市 전역에 녹색 이니셔 티브를 확산할 계획임. 녹색 전원도시 조성의 또 다른 목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유기농 식품을 공급하는 데 있음. 市는 이를 위해 지 속가능한 유통 모델을 마련할 예정임.



- 도심부에 전원도시가 생기면 주민과 주변 회사원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도시생활의 번잡함을 벗어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를 모음. 市는 이를 통해 10여 년 후에는 市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1%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manchester.gov.uk/news/article/5934/manchesters_first_garden_city_project_gets_underway)

전철 폐선(廢線) 부지에 산책로 조성 (일본 요코하마市)

- 일본 요코하마市는 미나토미라이線과의 직통연결을 위해 2004년 지하화한 도요코선(東橫線) 일부 구간의 폐선(廢線) 부지에 산책로를 조성함. 市는 도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25억 엔(약 325억 원)을 들여 길이 1.4km, 폭 10~20m 구간을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보행로로 조성하는 공사를 2005년부터 진행해왔음.

- 이 녹도(綠道)는 선로에 인접한 주민자치회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했으며, 2002년부터 ‘산책로 조성 통신’이란 홍보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해 왔음. 길 주변에 심은 꽃나무의 관리 및 유지 보수도 인근 주민들이 담당함.

(<http://headlines.yahoo.co.jp/hl?a=20110415-00000023-kana-l14>)

(www.city.yokohama.lg.jp/toshi/toshiko/atochi/)

‘대가구화(大街區化)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대가구화(大街區化) 추진업무를 맡은 실무자가 적절한 사업방식을 선택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대가구화 가이드라인’을 2011년 4월 작성해 배포함. 대가구화(大街區化)란 도로로 나뉜 소규모 필지를 합쳐(합필) 큰 필지로 만든 다음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임.

- 국토교통성이 2010년 5월 수립한 ‘성장전략’에서는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가구(街區, Block) 내 소규모 필지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병합해 대가구화(大街區化)를 추진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안내서가 없었음.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대가구화의 유효성, 효과, 과제, 실현가능한

사업수법, 공공시설 계획이나 공공용지 처분방법을 총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시가지 정비수법을 활용하는 경우의 장점과 공공용지가 감소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상술하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축적한 각종 사업 관련 노하우도 다른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www.mlit.go.jp/crd/city/sigaiti/materials/images/daigaikugaiyou.pdf)